

충북MBC 웹드라마 <인물별 대사>

① 안성애(여성,70세, 귀동뿔, 복숭아농사)

1. 딱히 복은 없게 생겼어. 몸은 또 왜 이랴. 꼬챙이마냥 빼짝 말라가고. 애는 낳겼어?
2. 쓸때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일로 들어와서 거 사진 한 장 찍어봐. 그...여권 만들라면 사진이 필요하다던데... 내가... 그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. (복숭아를 입에 쑥 넣어주며) 자, 값은 치른겨?
3. (자책하며) 하이고 부처님~~하나님~~ 미치겠네. 늙으니까 이놈의 정신머리도 쉬어터지나. 나 좋은 거라고 기냥 남의 입에도 쑤셔 넣었으니. 우뜨카. 참말로. (울상) 똑똑한 서울 아가씨줄 알았드니 맹송이네 맹송이.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어? 휘이. 밤새 똥구녕까지 굶어대고 싶지 않으면 복숭아 근처에도 가지 말어!

② 윤상직(남성, 80세, 이사 온 집 할배)

1. (귀가 안 들리는) 어??? 머래는겨어.. 기생충이 붙었으며는 약국에 가아~ 구충제 드셔야지..쩍.. (뒷짐지고 사라진다)
2. (마을 사람들의 체리 뒷담화를 듣다가)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이.. 너무 그러는거 아녀어. 늙은 우리덜은 뭐 당당하게 살아 왔나.. 용서해줄 줄 아는 것두 늙은이들이 할 일이어.. (유유히 자리를 뜬다)
3. (통화하며) 어어 김씨.. 아직 정년퇴임 안 했지? 요즘 세상이 덜 흥흥하지? 어어 뭐 별 건 아니고.. 그 심심하면 일거리 하나 줄라 했지. 그러 그러, 형사 생활 짬바가 30년이여 내가 오랜만에 축이 섰다니까..

③ 故권학수(남성,85세 死亡, 구근父, 체리마을 수호령)

1. (묘목을 다독이며) 도영아, 소중히 잘 키워보자. 네 미래가 될 거야.
2. (등허리를 두드리며) 아이고, 아이고. 수호령 노릇도 힘이 딸리네. 이러다 두 번 죽겠어.
이제 나는 은퇴해야 쓰겠는디.. (마을을 지켜보다가) 그러도 오래 살 놨은 오래 살아야지. 오십 년은 더하게 생겼네 어이구 어구구..